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오후 12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 : 2쪽	자료 : 2쪽	문의(실무부서)	국내사업부 배정호	02-6939-8156
관련 사이트 :	하단표기	홍보	전략기획부 신혜영	02-6939-8052

## 후이 · 보라미유,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OST ‘우리 시작할까요’ 듀엣곡

· 후이 · 보라미유,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OST발탁... 오늘 (19일) 발매



펜타곤 후이와 보라미유가 참여한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OST Part.2 ‘우리 시작할까요’가 오늘 (19일) 18시에 발매된다.

후이와 보라미유가 가창한 OST ‘우리 시작할까요’는 설렘을 머금은 전주와 함께, 두 사람의 유려하고 조화로운 하모니가 돋보이는 듀엣 곡으로,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마주한 시작의 순간과 감정의 떨림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후이는 뛰어난 보컬 실력과 작사·작곡은 물론 뮤지컬 무대까지 섭렵한 만능 아티스트로, 그간 'WHU IS KEVIN (후 이즈 케빈)', '잡초 (With 장혜진)', 'Easy dance (Feat. 권은비) (이지 댄스)' 등의 싱글을 발매하며 음악 팬들과 꾸준히 소통해왔다. 그 뿐 아니라 '정숙한 세일즈', '손해 보기 싫어서' 등 다수의 드라마 OST에 참여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함께 설레는 분위기를 더한 보라미유는 애뜻한 목소리와 감성으로 많은 리스너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로, ‘통화연결음’, ‘끝난 사이’ 등의 히트곡은 물론 ‘이 연애는 불가항력’,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등 다양한 OST에 참여한 바 있어 두 명품 보컬의 만남이 선사할 감성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에 첫 방송된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는 시청률 3.3%(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출발해 2회에서는 3.4%, 분당 최고 시청률 3.8%까지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원작의 서양풍 설정을 한국적인 색채로 재해석해 몰입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폭군으로 알려진 남주 ‘이번’(옥택연 분)과의 엇갈린 첫 만남 이후, 예상치 못한 첫날밤을 보내며 전개가 급물살을 타 한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후이와 보라미유가 참여한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OST Part.2 ‘우리 시작할까요’는 오늘 (19일) 18시에 멜론, 스포티파이 등 각종 음원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다.

□1-2회 하이라이트 보러가기

<https://youtu.be/2sGPRvtA88Q>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OST Part.1 보러가기

<https://youtu.be/lhC9HJWTpNU?list=RDlhC9HJWTpNU>